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은 뜻이 있어 행할 일이 있으면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해 주신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다.
2. 성령님은 뜻을 두고 은밀하게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각자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다가, 이어서 성령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행한 후에는 성령님이 처음부터 그와 같이 구상하고 행하심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신다.
3. 성령님이 어떤 뜻을 두고 행하실 때는 그 일의 전초부터 구상하여 행하게 하시고, 이어서 근본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4. 알고 보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성령님이 행하셨다.
5. 성령님이 행하실 때 자기 육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행하심을 빼고 생각하면 자기가 행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6. 사람들도 앞날을 내다보는 자들은 미리 필요한 물건을 사 놓았다가 때가 됐을 때 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어 먼 앞날을 다 알고 미리 행해 놓으신다. 고로 앞날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불가능 없이 능히 행하신다.
7. 구약시대 때는 신약역사를 위해 수천 년 후의 일을 예언해 놓으시고 행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앞날을 위해 아예 미리 행해 놓기도 하신다. 그래야 때가 왔을 때 쉽게 행하기 때문이다.

8. 자기 개인을 보아도 하나님이 앞날을 위해 미리 행해 놓게 하셨음을 알 수 있다.
9. 섭리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미리 필요한 자들을 택하여 섭리사에 불러오시고, 현실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을 합당하게 쓰기도 하셨다.
10.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행하지만, 성령님은 앞날을 아시니 앞날의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행해 놓으신다. 고로 성령께 묻고 행하여라.
11.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다. 절대신 성령님은 항상 완전하게 행하신다.
12. 성령으로 행하려면 성령과 일체 된 생각을 하며 살아라.